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정책 보고서

KROSS

2026
Quantum Leap
KNUICF



CONTENTS

1	2026 Quantum Leap KNUICF 변화와 재도약을 맞이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2	지정형 산학협력 중점교수	4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8
4	Good Bye 2025 산학협력단 사진전	11



2026 Quantum Leap KNUICH

변화와 재도약을 맞이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2026 Quantum Leap KNUICF

변화와 재도약을 맞이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년 새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시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그 동안 산학협력단의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수주와 인력 규모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어 왔으며,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위에 강소특구를 넘어선 광역특구로의 확장, 그리고 캠퍼스 지형을 바꾸고 산학협력 생태계를 혁신할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완공으로 **퀀텀리프(Quantum Leap)**를 위한 새로운 준비가 완료되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 간 축적해 온 노력과 맞물려 강원지역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산학연 클러스터로 도약**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산업 재구성과 나아가 **5극3특의 핵심 성장엔진**으로서 담대한 변화에 도전한다.

① 강원 1도1국립대 출범, '통합 산학협력단의 새로운 출발'

2026년 3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가 통합한 '**통합 강원대학교**'가 공식 출범하면서 산학협력단 역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춘천캠퍼스**는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데이터산업 중심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삼척캠퍼스**는 액화수소, 에이징테크, 재난방재 분야의 '**지산학 협력 거점**'으로 육성하며, **강릉캠퍼스**는 신소재, 해양생명, 천연물바이오 분야의 '**지학연 협력 거점**', **원주캠퍼스**는 디지털헬스케어, 반도체, E-모빌리티 분야의 '**산학협력 거점**'으로 각각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 강원대학교의 4개 캠퍼스는 지역별 특화 산업과 인재 수요에 대응하면 동시에 교육과정과 연구 프로젝트,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연합형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도 연구자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반규정 제/개정을 위해 캠퍼스 간 심도깊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춘천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역량 공유와 추진 사업별 협업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통합으로 연구비 수주 규모와 기술이전 수익면에서 확대가 기대되며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고등 교육 혁신의 우수 모델**로 거듭날 전망이다.



② 신임 산학협력단장 취임, '유연한 조직 운영과 혁신적 성과창출 기대'

2026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취임 예정인 **신임 산학협력단장 취임**에 따른 유연한 조직 운영이 기대된다. 산학협력단은 그 간 공격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사업 수주와 인력 채용을 통해 성장해 왔고,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통합과 강소특구의 광역특구 확장(연계)가 기대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산학협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료된다. 이로써 산학협력단은 행정의 전문화와



연구자 연구몰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자 맞춤형 행정**'과 기술사업화 수익을 극대화하는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변화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을 지속 확장하는 동시에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의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과 혁신비전/의지 공유로 산학협력단의 변화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한다.

③ 강소특구에서 광역특구로, '통합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춘천, 강릉, 원주를 잇는 혁신의 교두보'

강원대학교(기술핵심기관)와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기한이 2026년 3월6일자로 종료되고, 강원도 전역을 포괄하는 **강원 연구개발특구(광역) 체제**로 변화한다. 기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도시 단위의 지원을 넘어 **춘천(바이오), 강릉(반도체 소재/부품), 원주(디지털헬스케어)**를 잇는 광역 단위의 협업 체계로의 변화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지역 거점형'에서 '광역허브형' 지원협업 주체로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R&BD(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과제가 대폭 늘어날 것이고 통합 강원대학교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자명하다. 또한 산학협력단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운영경험을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특구 전환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강원 연구개발특구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 기업 유치, 매출 4.2조 원 증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 가시적 경제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난드론 등 강원특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 분야도 추가로 발굴해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④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산학연혁신허브) 완공, '강원지역 산학협력의심장, 두근두근' >>>

대학 캠퍼스 유희부지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혁신파크'의 핵심시설인 '**산학연혁신허브**'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낸다. 2026년 상반기 기업들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산학연혁신허브는 거점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기업의 연구 및 경영 활동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의 결정체다. 이 공간에는 바이오, IT, 신소재 분야의 **혁신기업 100여가 입주할 예정**이며, 입주기업은 대학의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등 대학의 모든 인프라를 공유한다.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혁신허브의 효율적 운영과 대학의 기업지원 역량 집중을 위해 2층, 8층에 입주하는 동시에 2단계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캠퍼스혁신파크의 산학연혁신허브는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연구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역동적 산학협력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강원대학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개발특구라는 확장된 환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대학교에서 시작된 산학연혁신허브는 산학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이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2





2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전임교원의 지·산·학 연계를 제도화

강원대학교는 전임교원의 산학협력 및 지역 연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채용이 아닌, 기존 전임교원 가운데 산학협력·창업·지역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높은 교원을 '지정'하여, 대학의 핵심 협력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임교원의 역할 확대를 이끄는 장치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연구와 교육에 더해 기업·지자체·지역사회와의 연결자로서 기능 한다. **연구 수주, 지식재산 창출, 기술이전 학생 취·창업 지원, 기업 기술지도,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가 사회적·산업적 가치로 확장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정 대상은 강원대학교 전임교원(춘천·삼척캠퍼스 포함)이며, 교원의 지·산·학 연계 역량과 실적 검토 등 면밀한 내부 선정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후에는 성과점검을 통해 재지정 또는 철회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성과 기반의 책임 있는 제도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2025년 '지학협력'으로 확장된 제도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는 기존 '**산학협력분야**'에서 한 단계 확장된 '**지학협력분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대학30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지역-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학협력분야에서는 기존 산학협력 성과에 더해, **지자체 연구비 및 예산 확보, 지역 정책연구 참여, 공공기관 및 지역 단체 활동 등 지역 기반 성과 지표가 새롭게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 교원창업,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의 차별적 경쟁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의 가장 뚜렷한 강점 중 하나는 **교원 창업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창업 성과**다. 단순한 창업 교육이나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전임교원이 직접 창업 주체가 되어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강점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내 **'창업협력분야'** 운영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거나 의미 있는 투자유치를 이룬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교원창업이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 지표 중 하나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창업 경험을 가진 교원' 중심의 제도 설계

강원대학교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창업협력분야'**로 지정된 교원들은 **모두 교원창업을 직접 수행한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창업을 연구 성과의 부수적 결과가 아닌,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운영 방식이다.

해당 교원들은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으로서 기업 운영, 매출 창출,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시장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경험을 다시 대학의 산학협력·교육·학생 창업 지원으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교원 창업 중심 산학협력 모델의 확장

'창업협력분야' 지정형 산중교수들은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투자유치 실적에서 대학 전체 창업 성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원창업이 단발성 시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원대학교는 앞으로도 창업협력분야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중심으로, **교원창업 → 기업 성장 → 산학협력 확장 → 지역으로의 성과 환류**라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교원 개인의 도전이 대학의 성과로, 대학의 성과가 다시 지역과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강원대학교형 산학협력 모델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 연결에서 협력으로, 제도의 '사람'을 잇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교류회**'이다.

교류회는 지정형 산중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산학협력·창업·기술이전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정보 전달 형식을 넘어, 서로의 전문성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관계 형성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교원창업, 기술사업화, 지역 연계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교수들이 교류회를 통해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이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정형 산중교수 제도가 개인 단위 성과를 넘어 **집단 지성 기반의 협력 구조로 확장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교류를 넘어, 실질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조

교류회에서 형성된 논의와 관계는 '**소규모 그룹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확장된다. 산학협력단은 2025년 지정형 산중교수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4인 1그룹의 소규모 네트워킹**을 운영하고 있다.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교류회'와 '소규모 그룹 네트워킹'은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①전체 교류 → ②소규모 심화 논의 → ③공동 기획 및 후속 협력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는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넘어, 교수 간 연결을 만들고 협력을 촉진하며, 새로운 산학협력 성과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지속 및 강화 전략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는 전임교원의 지·산·학 연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향후에는 양적 확대를 넘어, 역할의 명확화와 성과의 질적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지정형 산중교수의 활동이 개별 성과로 흩어지지 않도록, 산학협력단의 주요 전략사업과 구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대학30, RISE, 지역 전략산업, 창업·기술사업화 등의 프로그램과 지정형 교수를 매칭하여, 단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학협력단 전체 성과의 견인차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우수 성과를 낸 지정형 산중교수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인에 머무르지 않도록, 성과 확산 구조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교류회, 소규모 네트워킹 등을 통해 활성화된 성과를 공유하는 세미나, 정기간행물·콘텐츠를 통한 성과 아카이빙, 산학협력 우수연구자·명예의 전당 연계 등을 통해 지정형 산중교수가 교내 산학협력 문화 확산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산학협력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강원대학교의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의 방향성과 철학을 보여주는 제도다.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산업계로 확장하고, 교원창업을 통해 시장과 직접 연결하며, 교수 개인의 역량을 대학 전체의 성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들고있다.

앞으로 강릉원주대학교와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지정형 산중교수 제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공통의 기준 위에서 각 캠퍼스의 특성을 살리고, 교원창업과 지역 연계를 중심으로 교수 개인의 도전이 대학의 성과로, 대학의 성과가 다시 지역과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학의 산학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할 것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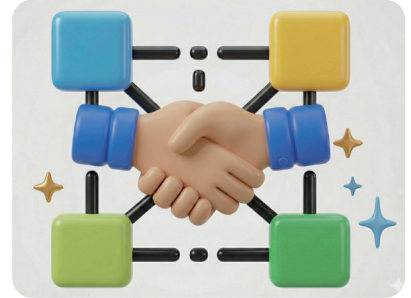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이공계 연구 인재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대학원 단계에서의 연구 몰입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 참여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은 연구책임자의 과제 수주 상황이나 연구실 재정 여건 등에 크게 좌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연구자 간 연구 인건비 격차와 연구 환경의 불균형 문제가 구조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석사과정 월 80만 원, 박사과정 월 110만 원의 최저지급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기준 미달 시 대학 차원에서 제도 적으로 보완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강원대학교는 본 사업을 통해 연구생활장려금을 기존 국가 R&D 인건비, BK21 장학금, 연구용역 인건비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칭형과 선발형 지원 방식을 병행 함으로써 연구 책임자의 부담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연구생활장려금이 반드시 필요한 대학원생 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연구 환경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단일 사업을 넘어 연구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운영

강원대학교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산학협력단 중심의 통합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연구처, 학생처, 대학원혁신과, 사업추진위원회 등 **교내 유관 부서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함으로써, 사업 기획 부터 집행, 관리, 점검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 환경 전반의 질적 개선과 연계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 및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연구단절 위험 연구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우수 연구실 인증제 운영 등은 연구 성과 창출의 기반이 되는 연구 문화 자체를 개선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특성 역시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강원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공동 연구, 지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본 사업이 국가 연구 인재 정책이자 지역 혁신 정책으로 확장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안정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대학원생의 연구 몰입도 향상과 연구 지속성 강화**이다. 안정적인 연구생활 여건은 연구 중단이나 진로 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

이는 논문 게재, 특허 출원, 연구과제 참여 확대 등 가시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연구비 부당회수 방지 체계,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운영, 인건비 지급 모니터링 강화 등은 학생연구자 권익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이 만들어낼 더 큰 성과를 향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단기 재정 지원이 아닌 대학의 미래 연구 역량을 설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대학원 단계에서의 연구 환경 개선은 곧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직결되는 선행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서 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액 제도와 지원 원칙이 명확히 정착될수록 연구책임자와 대학원생 모두가 제도를 신뢰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연구실 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대학원생 개인의 연구 여건 개선을 넘어, 대학 전체의 연구 문화와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축적된 성과는 우수 인재 유치,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 정주형 연구 인력 양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며, 강원대학교는 이 과정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은 현재의 지원을 넘어 미래의 연구 성과와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투자이다. 강원대학교가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갈 연구 환경의 변화와 그 성과는 대학과 지역, 나아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지역과 함께 꾸는 하나의 꿈, 미래산업 글로벌 리더 강원대학교

Good Bye 2025

산학협력단 사진전





4

2025 산학협력단 사진전



'25.1.

제 21주년 산학협력단 창립기념일 행사

창립 21주년을 맞아 전 구성원이 모여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25.2.

2025 산학협력단 워크숍

실무 역량 강화와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 충전**. 산학협력단 보직자 및 직원 약 100명이 참가하였다.

'25.2.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워크숍

입주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25.5.

전국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춘계 세미나

대한민국 산학협력 정책 방향을 논하다.
전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모델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 직원동아리 '리틀 팜레스트' 활동 사진

일터에 활력을 더하는 즐거운 만남.
취미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25.5.

중국 강소한커 초청 난징 방문

세계 시장을 향한 거침없는 도전.

중국 강소한커의 초청으로 난징을 방문하여 국제 산학협력 모델을 공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박람회에서 우리 대학의 우수 기술을 홍보하고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확장하였다.

'25.6.

BIO USA 참가



'25.7.

서암관 활용 촉진 프로그램 운영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꿈이 자라는 창의 공간.

서암관 인프라를 통해 학생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였다.





'25.7.

KNU 연구행정 아카데미 개최

연구자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무
노하우 및 전문 지식을 학습하며 **행정 전문가**
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25.8.

산학협력단 Meet-Up Day

팀워크로 하나되는 특별한 하루.

부서를 넘어 조별로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업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꿈지락
놀이터는 다양한 메이킹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창의적인**
꿈과 미래 지향적 직업 가치관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25.9.

강원대학교 메이커 페스티벌(꿈지락 놀이터)

'25.9.

강원대학교 RISE 상생발전 포럼

'RISE 체계와 지학 협력'을 주제로 기초강연과
패널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5.9.

우수연구자 성과공유회 및 간담회

연구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의 공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들의 노하우를 나누고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5.12.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성과보고회

실무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학생들의 생생한 성과를 공유하며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의 결실을 만들어냈다.



'25.11.

산학협력 유관기관 주임급 집체교육

조직의 핵심 인력인 주임급 직원들의 리더십을 키워 산학협력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였다.

'25.12.

크리스마스 하모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한 강원대 음대 오케스트라의 캐롤과 동요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 선물을 선사하였다.



'25.12.

산학협력단장 퇴임행사

12, 13대 산학협력단장 장철성 단장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비상할 것을 약속하였다.



발행처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인 : 김현욱(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무대리)

편집인 : 산학협력단 산학전략실

Tel 033.250.8283 **E-mail** kim0517@kangwon.ac.kr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태백관 2~4층